

【 서 식 Ⅲ 】

# 공 적 사 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 별	근속기간 (연, 월)
포항시 흥해읍	지방사회복지주사 (주민복지팀장)	신종태 (申鐘台)	남	27년 2월

## 공 적 사 항

○ 상기인은 1991년 7월 26일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현재까지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個人的 幸福은 萬人的 福止』라는 신념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경로효친 활동에 솔선수범하며, 효성과 노인공경심이 지대하여 지역민의 칭송을 받고 있으며, 직장생활에도 근면, 성실하며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주민의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사에 爲民精神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으므로 그간의 공적을 소개하면,

### 1. 시정기여도

○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기계면EM생활환경실천회(회장 000)에서 EM(유효미생물)을 생성하는 작업장이 없어 오랜 염원이던 난제를 접하고 작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내 자생단체 및 출향인사를 방문하고 각종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취지를 설명하고 동사업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불철주야 노력하였으나 역부족이었으며, 상급기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그마저 불요불급한 사안이라며 반색을 표하자 남모르게 고민도 하고 심사숙고 하던중,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종교단체를 방문하기로 하고 설명자료를 준비하여 이곳 저곳을 배회하던중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기계제일교회(목사 조00)에서 흔쾌히 후원자로 나섬으로 컨테이너(210만원) 작업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작업장을 마련하여 작업을 수행하던중 컨테이너의 특성상 한여름에는 찜통같은 열기로 작업이 어려워 또 고민이 생겼다. 계속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고 에어컨과 대형 선풍기를 마련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동절기에는 전기매트와 대형 온풍기를 지원하여 사시사철 큰 어려움 없이 유효미생물 생성 작업에 기여한 노력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큰 보람으로 여겨진다.

## 공 적 사 항

- 대민서비스에 대한 실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후원자나 봉사자, 기부자 등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지행정의 발전을 추구하는 순수 민간서비스의 업적 가운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실적만 살펴봐도 주방시설이 열악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고 예전의 사과과자를 찬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사용이 편리한 썬크대로 교체하고, 또다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3세대에 주방썬크대를 새로 마련하였고, 연탄보일러가 고장나 수명이 다된 가정에는 연탄보일러를 교환하고 연탄 200장을 지원, 홀로 계시는 어르신에게는 혼자다 혼자 텔레비전이 영감보다 낮고 친구보다 나운데 고장나서 고칠수도 없는 가정에 32인치 텔레비전 6대를 지원하였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세탁기 2대, 냉장고 1대, 가스렌지 1대, 그리고 양변기에 급이 생겨 온종일 물이 새는 것을 보고 걱정이 늘어진 어르신 2세대에 양변기를 새로 교체하였고,
- 삼북더위에 땀이 물 흐르듯 하는 어르신 9명에게 선풍기를 지원하여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 있게 하였으며, 건망증 및 치매 초기증세가 있는 어르신 2세대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가스타이머를 설치하고, 경로당에는 벽시계 1점, 전기밥솥 1점을 지원,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는 세대에 미음을 만들어 드시라고 믹서기 1대지원, 저소득 청소년에게 이불 2점, 전기매트 2점을 지원하는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며 오로지 만인의 행복을 위함이었다.

## 2. 업무추진능력

- 평소 업무추진에도 남달리 열정적인 면을 보여 직무제안 “동절기 도로 결빙지역 자동차 추돌시 충격완화 시설 설치 안” 이라는 제안을 한바 있으며 그 내용은, 동절기 도로노면 결빙시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및 운전미숙으로 주행선을 이탈하여 가드레일 및 도로변 옹벽을 추돌하여 인명 및 차량 피해가 심한 지역을 조사 선정, 페타이어를 위험지역 도로변 가드레일 및 옹벽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전면예 형광 혹은 야광 페인트로 도색 또는 여러 가지 문양을 넣어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페타이어의 가운데 부분에 덮개를 만들어 포항시의 심볼 마크를 도안 각색 또는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토산품을 소개

## 공 적 사 항

할수 있는 광고매체로 활용하면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차량 충돌시 페타이어의 완충작용으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인명 피해 및 차량피해를 상당부분 줄 일 수 있는 내용으로 직무 제안을 하였으며,

-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수행하던중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서 불공평한 부분을 발견하고 1997년 6월에 직무제안을 통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한 내용이 있으며 그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사실상 저소득 장애인 다수가 생업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형화물자동차(1톤이하), 소형승합자동차(15인승이하)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어 생활의 여유가 있는 고소득 장애인보다 생활이 열악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2000년 4월 14일부터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3. 청렴도

- 1991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던해 34세의 늦각이 나이로 공직에 입문하여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용기와 의욕만으로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침병으로 소신을 펼치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일을 반납한 채 나름대로 불우이웃과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을 찾아다니고 함께 웃고 울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그 당시의 공무원 보수는 박봉에다 후생복지 마저 녹녹지 않은게 사실이었습니다. 고령의 조모와 모친를 모시고 처자식을 포함하여 여섯 식구의 가장이 된 상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그때부터 점심값이라도 줄이자는 일념으로 도시락을 갖고 출근하게 되고 그런 세월이 어언 7년정도 이어지고 매사에 근검 절약하는 일상이 생활화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약 20여년을 열심히 아끼고 모으고 줄이고 하는 사이에 조모는 돌아가시고 노모는 2009년 10월에 치매로 진단 받고 현재까지 투병중이나 열과 성을 다하여 간병중에 있으며, 슬하에 3남매도 훌륭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공 적 사 항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주거공간도 마련하고, 퇴직후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하여 조그만 사무실(40㎡) 용도로 행정공제회비 적금으로 마련하였으며, 중소도시인 읍소재지라 가격은 높지 않은편으로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보람은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고령인구로 노령화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노인심리상담사, 문해교육사3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봉사하기로 준비하고 있다.

### 4. 공사생활

○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점은 저소득층의 욕구나 희망 사항이 너무나 다양하고 유형도 각양각색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분하기가 쉽지않다. 일례를 살펴보면 2013년 3월경 기계면 봉계리에 거주하는 박00(여,75세) 어르신께서 하수도가 막혀 주방 싱크대에 하수가 역류하여 취사를 할수 없으니 식사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 사항인데 어느 부서에서도 예산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가운데 무작정 방문하여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던중 자활사업 인부를 데리고 하수관을 교체하고 배수를 위하여 커다란 웅덩이를 파서 자연배수가 되도록 웅덩이에 자갈과 돌을 넣고 마무리를 했더니 어르신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복지분야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나 언제나 미흡한 실정이다.

상기와 같이 상부의 지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산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손수 몸으로 부대끼며 하나하나 해결하는 모습이 공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참공무원상이 아닐까 한다.

○ 2014년 7월에는 무덤고 힘든 삼복더위를 맞아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하여 특별한 일을 치르는 일이 있었다. 무의탁 독거노인이란 슬하에 자녀도 없고 다른 가족이 없는 어르신을 가르키는데 그해 여름에는 무척이나 힘든 시절이었다.

일반인들은 복날 삼계탕이나 보양음식을 먹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나 어르신들께서는 평소 생활이 어렵고 챙겨줄 가족이 없으니 특별식이란 무척 생소해 보였다. 그래서 어르신을 모시고 복날 삼계탕을 대접해야 겠다는 일념으로 관내 후원자를 발굴하고자 동분서주 하여, 그 결과 무의탁

## 공 적 사 항

독거노인 12명을 모시고 주왕산 삼계탕을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날은 정말 무더운 여름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나눈 얘기는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다. 그 날 오후에는 정말 보람된 일을 할 수있게 해준 후원자님께 전화를 드리니 함께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훌륭한 아이템이라며 흐뭇해 하셨다.

이렇듯 공사 생활이 언제나 반듯하고 매사에 열성적이니 주위에서 칭송이 자자한 흔하지 않은 공무원이다.

### 5. 지역사회 선행공적

○ 공직에 몸 담은지 27년이 지난 요즘, 언제나 그랬듯이 앞만보고 달려온 시간이 웬지 덧없이 보낸것 같아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그간에 쌓은 선행을 살펴보면,

2001년 5월에 모자가정인 김 00(여,53세) 세대에 갑작스런 떡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하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내용인즉 세대주 김00의 목에 통증이 오더니 급기야 전신마비 증세로 병세가 악화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본인 의료비 및 자녀 최00(여,17세)의 교육비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포항MBC『주간영일만』을 통하여 생활상을 소개하며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성금 및 세탁기, 책상, 컴퓨터 등 100만원 상당의 성금품을 마련하여 정밀 검진비용 및 자녀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애쓴 보람이 있으며,

○ 2003년 11월경에는 창포주공 106동에 사는 김00(남,58세)가 민원 업무차 동사무소를 방문하였으며 그날 따라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 그이가 입고 온 점퍼의 지퍼를 채우지 않아 누가 보아도 상당히 추운 기색이 역력하여 “날씨가 차가운데 점퍼를 채우시지요.” 라고 말을 건네자 그이는 귀찮은 듯 점퍼의 지퍼가 고장이 나서 어쩔수 없이 이렇게 다닌다고 하였다.

그때 마침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헌옷 수집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라 그이를 옆자리에 앉히고 재활용 창고에서 필요한 지퍼 고리를 구하여 교체하여 주고 그이가 채워 보더니 마음에 들었는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당신은 죽도시장에서 옷수선업을 해도 되겠소” 라는 말을 건네며 동사무소 문을 나섰다.

## 공 적 사 항

이런 광경은 우리 사회에서 부모자식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닐까요?

### 6. 기타사항

- 2014년 6월 포항시에서 감사편지 쓰기 공모에서 노모에 대한 애뜻한 효심과 사랑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세상에 들도없는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바람불까 비맞을까 노심초사 하시며 든든한 아들로 길러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 남들보다 더 가르치려는 교육열에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가장의 빈자리를 굳굳하게 지켜주시고 바람막이가 되어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 전세, 월세로 전전하던 시절 자식들이 기가죽어 지낼까봐 집주인보다 더 고향치고 큰소리치던 어머니의 속깊은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식 입에 밥들어가는 것과 내논에 물들어가는 것이 어머니의 가장 큰 행복이라며 자신의 허기를 채우는 일에는 소홀하고 오직 자식만 위하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충충시하 시집살이에 시어른 섬기랴 시누이, 시동생 살피랴 내 자식 돌보랴 그 시절에는 왜 그리도 시집살이가 매운지 어머니의 한많은 주름살에 감사합니다. 자나 깨나 자식 걱정으로 한평생을 보내시면서 자신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자식의 영광만 바라던 어머니의 속마음을 이제야 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전화를 할수 있는 어머니께서 계시니 정말 행복하고 든든하며 아픈데 없이 오래오래 살아만 주신다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 내년이면 공직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간의 공과를 정리해보려는 마음이며, 공직자로서 주민을 위해 아직도 더 많은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일념으로 주위의 격려와 칭찬에 근접하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참봉사자로 많은 공직자의 표상이며,公私 생활에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모범공무원으로 사료되어 이에 표창대상자로 추천합니다.